

상하이 드림 봉사단 소개

저희는 2012년 5월 청소년 봉사단체로 시작해서 이듬해 학부모님들까지 합류해 이루어진 자선봉사단체인 “상하이드림봉사단” 입니다.

단체의 중요 핵심가치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바탕으로 “중국이라는 나라와 중국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로 시작되는 물음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좋은 이웃이 되기를 노력하는 한국인” 으로 정의하였고 이를 실천하고자 현재 학생과 학부모 포함 약 7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고 더 나아가 중국이라는 나라와 주변국들에게 “평화를 사랑하는 한국인” 으로 자리매김하고 세계 각국의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곳 상하이에서 “전쟁 없는 아시아” , “평화의 동북아” 를 구현 하고자 하는 염원을 담아 “봉사활동” 으로 작은 실천들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히어로역사연구회(평화한국 상해지부)의 지도 하에 좀 더 체계적인 봉사활동과 청소년 교육에 집중하여 중국 상해지역에서 왕성한 활동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봉사활동으로는 중국인과 외국인이 많이 살고 있는 구베이의 수이청난루 지역에서 매주 일요일 아침, 학생들과 학부모가 함께 거리 청소를 하고 있고, 또한 1년에 두 차례 중국 장애인 시설을 방문하여 청소와 장애인 목욕 및 친교의 시간을 갖으며 필요 물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말에는 한국인과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민항취 홍차오전 사회복지과의 협조를 받아 자선바자회와 자선음악회를 개최하여 중국 선천성 장애 아동의 수술비와 치료비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교육활동에는 삶 속에서 인문학 읽기 (매주 인문학 강의), 멘토들과 삶 나누기 (매달 1회 상하이 지역 멘토강의), 한국인으로서 정체성 발견하기(한국, 중국 역사문화탐방), 나의 꿈 발견하기 (상해지역기업체방문), 함께 꿈 나누기(체육대회 및 친교 활동) 등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차세대 “글로벌 리더로서의 한국인” 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배움과 실천의 토대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임시정부 100주년이 되는 해로써 상해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강의를 진행하였고, “상해임시정부를 을 이끌었던 독립운동가들의 켈라그래피” 라는 특별한 이벤트도 진행하였습니다 . 앞으로 저희 상하이드림봉사단은 이와 같은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서 “좋은 이웃이 되기를 노력하는 한국인” 으로 자리매김하고 이곳 중국과 더 나아가 다른 주변국들에게 청소년들의 작은 봉사를 통한 평화의 몸짓과 메시지를 알리는데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한반도 통일의 주역으로서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이웃과 최선을 다하는 봉사단이 되기를 약속하며 많은 지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9. 8. 6.

상하이드림봉사단 학생회장 박병준